



Sujeong Shim (South Korea)

## Bab.la 에서의 소중한 3 개월

**업무 내용** Bab.la 에서 는 인턴 개개인의 책임감을 신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는 상사의 감독이나 지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의 업무는 크게 마케팅과 콘텐츠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다양한 웹사이트 홍보 전략들을 구상하고 실행하였으며, 구글 인덱스 관리 법 등을 배웠다. 인턴들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인턴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콘텐츠 부분에서는 대개 사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사용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는 일들을 하였다.

회사의 분위기는 수평적이고, 매우 열린 분위기 이다. 매주 열리는 마케팅 회의를 통해, 다른 인턴들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상사와의 피드백 타임에는 업무 관련 이야기뿐 만 아니라, 회사 생활 내의 만족도 등을 이야기 한다. 매주 목요일 점심에는 회사 사람들이 돌아가며 오피스 런치를 한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인턴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내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다.^^ 금요일 업무가 끝나면, 비어타임을 갖는다. Bab.la 에서 제공하는 맥주나 음료를 마시며 자유롭게 1 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나, 주말 약속 등을 이야기 하는 시간이다.



**만남과 여행** bab.la 에서 일을 하는 3 개월 동안, 나는 여러 나라의 인턴들을 만났고, 여러 곳을 여행 다닐 수 있었다. 인턴들과 다같이 베를린이나 근교의 뤼벡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고, 독일 근처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을 다녀오기도 했다. 3 개월 기간 중 5 일을 휴가로 쓸 수 있었기에, 조금은 멀리 있는 파리와 스페인도 다녀왔다. Bab.la 에서의 인턴생활은 회사 내에서의 배움뿐 만 아니라, “유럽 여행” 이라는 흔치 않는 기회도 함께 제공해 준다. 여행을

다녀온 후, 함부르크에 돌아오면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곳이 정겹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마디** “회사생활” 만을 상상하며 온 나에게 그보다 훨씬 큰 선물을 준 bab.la  
에서의 3 개월은 매우 귀중한 경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기회이다.



Interns' picnic in Lübeck - August 2009



At Hamburg City Hall with other interns - September 2009